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인문경관의 특성과 유산(遺產)가치에 대한 탐색 *

임재영
(동아일보 기자)

I. 머리말

제주도의 중심은 한라산(해발 1950m)으로 한반도의 산과는 형성기원이 달라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속리산, 월출산이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 산지에 위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산지에 분포하는 반면 한라산은 가장 젊은 지질시대인 신생대 제4기의 분화활동으로 만들어졌다.¹⁾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으로 제주지역 자원이 등재되면서 한라산의 입지는 더욱 높아졌으며 3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중요지역이 한라산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경관자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라산이 특출한 경관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경관자원 특성을 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연구와 사업에 대한 전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식물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반면, 인문경관자원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한라산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종합적인 연구서는 2006년 발간된 <한라산총서>라고 할 수 있다. 한라일보사에서 실시한 ‘한라산학술대탐사’에 나섰던 전문가들로 조직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를 책임기관으로 해서 10권을 한질로 하는 총서를 간행했다. 자연경관분야에 치중됐던 한라산 연구가 역사·유적, 인문지리, 구비전승·풍수 등 인문경관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기를 맞았다.

자연과학 분야 연구에 치중됐던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조사는 1990년대 들어 인문분야로 관심이 확장했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양한 경관을 자원으로 고찰하고 유형 및 특성을 분석, 활용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자연경관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규명된 인문경관의 특성을 밝히고 유산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발표 자료는 2020년 8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임재영의 석사학위 논문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II.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인문경관

1. 연구의 범위

한라산 실체와 영역에 대해 정광중(2006)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 해발고도 500m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 설정하는 시점 등 3가지로 나누었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한라산체의 크기와 한라산의 영역(공간적 범위)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압축해서 고려하는 시점인데 한라산의 영역을 가장 작고 좁게 설정하는 과정이지만 한라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하는 시점에 따른다면 사실상 제주도 전체 연구나 다름없어서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리고 해발 500m이상인 경우 토지이용과 소유주의 다양성, 출입제한, 경관자원 활용여부 불투명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연구가 힘든 설정이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를 한라산국립공원과 접경 지역으로 정했다.

2. 경관에 대해

경관법(2018)에서는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또는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정의²⁾하고 있다.

경관의 개념은 ‘보인다’는 대상의 형태, 특징, 성질 등과 함께 ‘바라본다’는 관찰자의 입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각과 더불어 촉각, 후각, 청각 등도 경관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작용을 하기에 경관을 ‘인간이 감각 및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인문적 환경’이라고 해석하기로 한다.

인문경관은 ‘사회, 경제, 교통, 인구, 촌락, 지방 전통의 풍습, 예술 따위의 인문적 환경 조건에 의해 생기는 풍경’이다.³⁾ 한라산국립공원지역 등 자연환경에서 인간의 간접과 접촉으로 생겨난 경관으로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화경관을 ‘자연과 인간이 결합하여 빚어진 문화유산’으로 규정했다.⁴⁾ 인문경관과 문화경관은 공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경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문경관은 인간의 행위에, 문화경관은 상호작용과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에서 이뤄진 인간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인문경관 용어로 통일했다.

2)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 표준국어대사전.

3)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 표준국어대사전.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3.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인문경관

한라산국립공원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153.3km²의 구역이 지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 규모는 동서길이 14.4km², 남북길이 9.8km²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행정구역별 면적은 제주시 91.6km², 서귀포시 61.7km²이다. 용도지구별 면적으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89.1km², 공원자연환경지구 64.1km², 공원문화유산지구 0.1km²로 구분하고 소유별로는 국유지 149.3km², 공유지 1.3km², 사찰지 0.1km², 사유지 2.6km²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국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건물은 공원시설 5개지구 77동, 공공시설(국토교통부 항공무선표지소, 제주장거리망중계소,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등) 건물 9개소 30동, 사찰 건물 4개소 23동, 민간시설(휴게소, 표고재배장) 2개소 5동 등 모두 49개소 135동이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는 15곳(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로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등 명승이 4곳,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해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5곳이 조사됐다.⁵⁾

제주도지정 문화재로는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가 3곳, 존자암지 등 기념물이 2곳으로 나타났으며 근대문화유산으로 제주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가 등록문화재로 조사됐다. 비지정 문화재로는 전설, 신화, 사찰, 케른 등을 제시하면서 인문경관 자원을 발굴했으나 구체적인 역사와 의미부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기초 자료와 현장탐방 등을 통해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인문경관 특징에 따라 시설·도로형, 1차 산업형, 종교·제사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류의 기준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후 연구 작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1) 시설·도로형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탐방로 시설을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데크, 돌계단 등의 형태가 있다. 탐방로 주변에는 대피소, 탐방안내소, 안내판, 편의시설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간 한라산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하치마키도로 흔적이 한라산 둘레길에 남아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성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1100도로, 5·16도로 개통으로 한라산 탐방이 보다 쉬워지면서 탐방객이 증가한 요인이다. 5·16도로의 숲 터널의 경관과 어리목탐방로, 1100도로의 1100고지의 겨울경관 등은 도로가 있기에 가능하다. 도로와 수원지 개발에는 제주도민과 이외 지역에서 인력이 투입되면서 다양한 사연이 담겨있다.

2) 1차 산업형

5)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일제강점기 한라산 일대에서 대규모 벌채가 이뤄지면서 표고버섯재배가 성행했으며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숯을 만들었던 숯가마, 수렵, 약초 수확 등의 활동이 있었다. 1973년 3월에 한라산 국유림 제30림반(조천읍 교래리)에서 수만그루를 벌채해 숯을 굽던 일당이 단속 공무원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라산의 숯가마터는 관음사코스, 어슬렁오름, 영실, 논고악, 성판악, 국유림8림, 속밭입구 등 7개소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⁶⁾

고지대 방목은 백록담 부근 해발 1400~1950m에서 이루어진 아고산지대 목축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목축문화였다. 목축민들은 여름 철 파종을 마무리한 후 일정한 날을 정해 백록담을 랜드마크로 삼아 우마를 올렸다. 이곳에는 마을과 방목지를 연결하는 방목로가 존재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가정책에 의해 국립공원 내 방목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라산 방목은 소멸되고 말았다.⁷⁾

고지대 방목 외에도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제주시 오라동 능화오름(해발 965m)과 제주시 해안동의 족은두레왓(해발 1339m)을 연결하는 해발 600~1200m 일대 위치한 화전동은 제주도의 화전 마을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고도에 입지한 마을이며 현재까지도 능화오름과 탐라계곡 북서쪽에는 화전마을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⁸⁾

3) 종교·제사형

조선시대 임제(林悌)가 남긴 남명소승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에 ‘산 중턱에 오르니 빙설이 아직 녹지 않았고, 곳곳에 깊이가 한 길 가량이나 되어 사람이나 말이 푹푹 빠졌다. 말은 그대로 두고, 걸어서 겨우 존자암을 찾았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청순 스님이 나와서 맞아주었다’⁹⁾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한라산에 불교문화가 있었다.

존자암의 창건시기는 알려져있지 않으며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해 실체를 확인했다. 현재는 발굴지 인근 영실탐방안내소 부근에 존자암 사찰이 새로 들어섰다. 제주시 방면사찰로는 관음사, 천왕사, 석굴암이 있으며 영실탐방로 입구에는 영원사가 있다.

‘한라산신제’는 1418년(태종 18) 한라산이 사전(祀典)에 등재되면서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가 봄과 가을에 이뤄졌다. 명산대천에 제를 지냈은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라의 일로 백록담에서 봉행됐다.¹⁰⁾

백록담 북쪽에 제단을 마련해서 제사를 지냈고 기우제를 지낸 기록도 나온다. 물장오리 오름에서도 기우제를 지내는 등 제사의식도 성행했다.

6) 양송남(2010), 『양송남의 한라산이야기』, 태명인쇄사.

7)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8) 강만익(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I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9) 제주문화원(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10) 고윤정(2013), 「조선시대 한라산유산기와 등람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4) 방어유적형

제주4·3사건 당시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 병력이 관음사에 주둔했다. 관음사전투로 불리는 교전이 무장대와 토벌대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고 지금도 토벌대가 주둔했던 유적이 남아있다.¹¹⁾

군경토벌대 주둔소는 모두 30여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음사를 비롯해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인 시오름, 수악 등지에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악주둔소(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는 지금까지 석축, 초소 등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원형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간 일본군이 구축한 어승생약 일제동굴진지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07호로 등재됐다. 조선조 이형상 제주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보고 해발 1660m의 왕관릉 또는 삼각봉에 제주의 위급함을 알렸던 연대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¹²⁾

5) 기념물형

조선시대 한라산을 다녀간 인물 등이 암벽이나 벼랑에 글씨를 새겨 넣은 마애명(磨崖銘)이 백록담에서 31건이 조사됐다. 제주4·3사건으로 한라산에 대한 입산 금지령이 풀린 것을 기념하는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와 평정기념비가 백록담에 세워졌다. 1935년 겨울한라산 정상 등반에 도전했다가 조난 당한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원 마에가와 도시하루를 기리는 케른과 묘비문이 한라산 용진각 남동쪽에 있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초의 한국인인 고상돈, 히말라야 8000m급 10좌를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한 제주출신 산악인 오희준을 기리는 케른이 있다.¹³⁾

장구목오름에는 1984년 한라산에서 훈련 중 사망한 제주대학교 산악부 대장 고동익 기념비와 1992년 북미 매킨리봉 등정 중 사망한 양영수 외 2명의 기념비도 같이 있다. 1982년 대통령 경호 군용기가 관음사등산로 계곡에 추락, 특전사대원 등 53명이 숨진 사건을 기리는 기념비인 원점비 등은 관음사탐방로에 마련됐다.¹⁴⁾

6) 풍수지리형

한라산은 제주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로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길게 떨어져 발복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복이 오래간다고 했다. 한라산을 크게 사라오름을 중심으로 성판악을 따라 내려가는 맥과 영실쪽에서 내려가는 맥 등 크게 2가지 맥으로 구분했다.¹⁵⁾

풍수지리에서는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길고 깊게 뻗어 내려온 대맥의 귀결지로 한라산을 인식했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형국론(形局論)을 중심으로 비롯된 전설적 명혈이 많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6대 음택혈인데, 제 1혈은 신이 내린 명혈지로

11)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앞의 책.

12) 강문규, 장윤식(2013), 「한라산에 남겨진 역사와 문화의 자취」, 『한라산총서 축약집 한라산이야기』, 제주도.

13)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2), 앞의 책.

14) 양송남(2010), 앞의 책.

15) 신영대(2006),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한라산총서 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손꼽는 사라오름의 ‘사라혈’로 산의 형국이 마치 힘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형상으로 기운이 빼어난 곳이다.

제2혈은 남근을 상징하기도 하며 개미의 머리형상을 하고 있는 속칭 ‘개미목’이라고 하는 의항혈이다. 제 3혈은 중국 주자의 부친이 묻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영실계곡의 ‘영실혈’로 봉황새가 울어대는 형국을 간직한 곳이다.¹⁶⁾

7) 신화 · 전설형

설문대할망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삽으로 흙을 7번 파서 던지니 한라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곳곳에 산재한 오름들도 설문대할망이 치마에 흙을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¹⁷⁾ 제주를 창조한 거대여신인 설문대할망 신화는 곳곳에서 전해진다. 한라산국립공원 물장오리오름은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은 곳이라는 이야기, 영실계곡의 오백나한도 설문대할망과 연결이 된다.

한라산신 사상은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을 통해 내려왔다. 본래 한라산신은 온 도민의 신앙 대상이었다. 바꿔 말하면 온 도민은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거기에 신의 존재를 믿어 그들의 복리를 기원했었다. 이 신앙행사는 마을의 복리를 축원하며 전승되었기 때문에 어느새 한라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성격이 바뀌졌다.

마을의 수호신이란 바로 당신(堂神)이다. 한라산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지는 당신들은 바로 한라산신 숭배의 잔영이다. 한라산에서 출생했다는 당신은 그 수가 30에 이른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구좌읍 세화리 당신 천자또, 서귀포시 보목동 보름웃도, 남원읍 하로영산 백관또, 한라산 상봉 섯어깨에서 솟아난 성산읍 수산리 올래모루 하로산, 중문동 하로산 등이다. 한라산 출생신들은 그 이름에 하로산이 잘 붙는데 하로산은 한라산을 뜻한다.¹⁸⁾

8) 예술 · 기록형

고지도에 나타난 한라산 백록담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사례가 많아 당시 백록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당시 의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제주도도(濟州島圖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탐라도총에 백록담분화구에 신선과 사슴의 모습을 그려 넣고 ‘사슴 한 마리가 우뚝 뛰어나고 색깔이 하얀데 등 위에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중략) 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대략 이러하다고 한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⁹⁾

조선시대 제주에 거주했던 관료 등은 한라산을 탐방하고 난 후의 느낌이나 과정을 유산기로 남겼으며 당시 기록물은 한라산 식생과 제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임제(林悌)의 저서 ‘남명소승’, 김상현의 ‘남사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등이 이에 속한다.

경관적 가치를 알리려고 한라산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림으로 한라산을 표현하는 예술작품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 교가에 ‘한라산’ 단어가 들어간

16) 신영대(2006), 위의 책.

17) 강정효(2003), 『한라산』, 돌베개.

18) 현용준(1970), 「한라산에 얹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지』 44.

19) 국립제주박물관(2013), 『한라산』, 국립제주박물관.

사례가 많은 점은 한라산이 제주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도 한라산은 주요 소재이자 주제이다.

III.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인문경관의 유산 가치

1. 유산에 대해

유네스코는 유산에 대해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유산으로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 3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²⁰⁾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이미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인문경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인문경관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지역 자산으로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서 탐구와 연구가 필요한 점을 밝히고자 한다.

더욱이 유네스코에서 유산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의 변화에 따라 유산의 의미가 확대되고, 분야도 다양해지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세계유산의 가치평가와 등재형태가 살아있는 유산의 중시, 유·무형 유산의 통합적 시각, 문화다양성의 존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2. 유산 가치로 본 인문경관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인문경관도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연속성’,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확장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 교훈적인 ‘역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연속성, 확장성, 특이성, 역사성 등에 따라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주요 인문경관을 살펴봤다.

1) 제주4·3사건

한라산 백록담 북벽 정상에 높이 100cm, 너비 45cm인 비석이 있다. 한반도 모양을 한 비석은 전면에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가 또렷하게 새겨졌고 오른쪽 상단에는 태극기가 그려졌다. 뒷면에는 ‘영원히 빛나리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 묵 씨는 4·3사건으로 8년간 봉쇄되었던 한라 보고를 갑오년 9월21일 개방하였으니(후략)’라고 쓰여졌다.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한 것을 기념해 당시 제주도경찰국장이 이듬해 백록담 북벽 정상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제주 4·3사건(이하 4·3사건) 유물유적 가운데 하나다. 이 비석 외에 ‘평정기념비’(平定紀

20)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21) 최원석, 2012,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자리』 24-1, 27-49.

念碑)라는 글자가 새겨진 또 다른 비석이 1949년 7월23일 백록담 서벽 정상에 세워졌다. 군토별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비석은 현재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제 사라졌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평정기념비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1958년까지 서벽 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에 새겨진 평정기념비 위에 1952년에는 ‘승리’라는 글자를 쓴 흔적도 확인했다. 1958년 이후 평정기념비 행방은 사라졌다. 평정기념비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한라산 최고점을 나타내는 삼각점과 돌무더기가 있다. 산악인 등이 암벽등반을 하면서 서벽 일대를 수색한 적이 있지만 소득은 없었다.



<그림 1> 한라산 평정기념비(현임종 씨 제공)와 백록담 북벽 정상의 개방평화비-연구자 촬영(2020년 5월7일).

4·3사건 당시 토별대와 무장대가 교전했던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에는 토별대 주둔소 흔적이 남아있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별을 위한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병력이 주둔했던 곳이다. 2연대는 제주도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토별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관음사 주둔지 외에도 서귀포 수악교 인근에 1대대를, 교래리와 산굼부리 사이에 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²²⁾

관음사 일대는 4·3사건 발발 당시부터 무장대의 주요 길목이었고 한 때 무장대의 본거지였던 어승생 진지와 가까운 작전상 주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별대가 이곳에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관음사 주변에 규모가 큰 숙영지는 가로 세로가 각각 25m 규모이고 3~4명이 잠복할 수 있는 초소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관음사 뒤편에는 숙영지와 초소가 비교적 훼손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초소 등의 돌담은 무너져 내렸고, 사이사이로 덩굴 식물 등이 자리 잡았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악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서 조성을 했는데 돌담의 높이는 2~3m이다. 돌담길이가 270m가량이고 면적은 1920m²정도다. 주둔소에 숙소는 물론이고 아궁이, 화장실 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주민들과 무장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길목에 주둔소를 설치했다. 이 주둔소는 전쟁발발 이전부터 무장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토별을 위해 각 경찰서

22)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3), 『제주4·3유적1-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별로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1952년 4월에는 전도에 32개의 주둔소가 있었다. 중요 주둔소는 60여명이 동시에 취침 및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경찰이 고정 배치되는 주둔소와 작전 때만 주둔하는 임시주둔소로 분류됐다.



<그림 2> 관음사주둔소(왼쪽), 수악주둔소. 연구자 촬영(2019년 4월1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 어승생약은 일제강점기간 진지동굴이 남아있으며 동굴과 주변은 4·3사건 당시 무장대의 아지트였다. 일제강점기간이 끝나고 일본군이 제주에 남기고 간 총검은 무장대의 무기가 됐다. 1945년 10월까지 제주지역에 일본군 5만명이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상당량의 무기 등을 여러 진지동굴에 넣어서 입구를 봉쇄하거나 땅에 파묻었다.

한라산에서 무장대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당시 토벌대의 자료 등으로 추적하거나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물장오리오름과 테역장오름 사이 초지, 어승생약 주변 초지 등은 당시 무장대의 훈련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 12월3일 경찰유격대는 물장오리에서 적의 아지트를 발견, 숨겨둔 M1소총 2정과 99식 장총 2정 등을 노획했다고 기록했다.²³⁾

1949년 3~4월 육군의 진압작전 이후로는 무장대들의 활동이 뜸했기 때문에 당국은 무장대들이 거의 소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후 제2연대나 제1독립대대의 작전기간에도 별다른 습격이 없었고, 1950년 전반기의 해병대 작전 때도 소규모의 교전이 있었지만 무장대의 습격은 없었다. 한라산의 잔존 무장대는 60여명 정도로 이들은 가급적 교전을 피하고 무기를 감추면서 연고지에서 부모형제들로부터 생필품을 보급 받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 99동을 불태웠는데, 이것이 한국전쟁 발발 후 첫 공격이었다. 한라산의 무장대들은 남하하는 북한군들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했다.

해병대는 1950년 2월부터 6월까지 산악지역 제 1차 진압작전을 벌여 돌오름, 한대오름, 영실 오백장군 등지에서 무장대와 교전을 벌였다. 경찰은 1950년 10월1일부터 1951년 4월22일까지 교전에서 무장대 사살 56명, 무기노획 소총 11정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군경 합동 토벌은 1951년 1월17일을 기해 시작됐다. 1월27일 어승생약에서 무장대 20명을 포착하여 40분간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하고 노획품을 얻었다. 1월29일 사라악 부근에

23) 제주도경찰국(1990), 『제주경찰사』, 일신인쇄사.

서 무장대 약 30명이 식량을 운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2월10일에는 사라악과 명도암 중간에서 무장대의 아지트를 발견, 15명을 사살했으나 무장대 60여명에게 포위돼 토벌대도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표 2> 한라산지역 군경토벌 현황

날짜	장소	내용
1948년 12월5일	관음사 인근	8명의 무장대를 사살
1949년 5월	관음사 인근	무장대 5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생포
1949년 6월7일	물장오리 동쪽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1950년 2월5일과 6일	돌오름 부근	수색작전을 벌여 무장대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
1950년 3월10일	중문면 해발 881m	무장대 야전병원을 기습해 병원장 등을 사살
1950년 3월 하순	한대오름 부근	무장대 회합장소 기습해 7명을 사살
1950년 3월17일	해발 1394m에서	무장대 아지트 기습해 1명 사살하고 3명 생포
1950년 3월17일	해발 1394m와 오백장군지역	무장대 아지트 기습해 2명 사살
1951년 1월29일	사라오름 인근	식량 운반중인 무장대 30여명 기습, 3명 사살
1951년 2월10일	사라오름과 명도암 사이	무장대 아지트에서 15명을 사살. 토벌대 10명 사상자 발생
1951년 2월22일	북악 인근	무장대 40명과 조우하고 교전 끝에 5명을 사살
1952년 12월3일	물장오리오름 인근	무장대 아지트 발견, M1소총과 99식 장총 노획
1952년 12월24일	적악 서북쪽 말체오름	무장대 20여명과 교전 끝에 4명 사살
1953년 1월26일	붉은오름과 새오름 사이	무장대 50여명과 교전을 벌여 9명 사살하고 1명 생포
1953년 3월14일	성판악 인근	무장대 아지트 발견되자 무장대는 도주
1957년 3월21일	견월악 지역	식량확보차 하산하는 여자무장대 한순애 생포
1957년 3월27일	평안악 밀림지대	토벌대는 무장대 3명과 교전 끝에 총책 김성규 등 2명 사살

출처: 정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도 제주4·3유적 1, 제주경찰서 등의 자료에서 취합해서 연구자가 작성.

당시 생포된 무장대원에 따르면 무장대는 죽과 소금으로 끼니를 이어가기도 하고, 말고 기를 대용식으로 하기도 했다. 숲이 우거진 깊숙한 곳에서 나뭇가지를 깔고 2인이 담요 1장을 덮고 잤으며, 비 오는 날에는 담요를 지붕으로 삼았다. 한라산에서 방목을 하다가

통행금지 등으로 찾지 못한 말과 소 등이 무장대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²⁴⁾

토별대 주둔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수악주둔소는 2018년 6월 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재돼 관음사주둔소와 더불어 4·3사건 유적 탐방지가 됐다. 무장대 총책이었던 이덕구가 은신했던 아지트(해발 640m)에는 당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깨진 무쇠 솔, 사기그릇 등이 남아있다. 이 곳은 ‘이덕구 산전’(山田)으로 불리며 현재 관련 단체 등의 교육 및 탐방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3> 이덕구 산전. 연구자 촬영(2020년 5월8일).

2) 불교

한라산 영실(靈室)은 정상인 백록담에서 남서쪽 해발 1300m~1650m 일대에 위치한 골짜기로 둘레 2km, 깊이 0.35km 가량이다. 날씨가 맑았다가도 순식간에 한치 앞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운무가 덮는 등 변화가 심한 곳이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은 2011년 명승 제84호로 지정됐는데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영실 일대는 불교문화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지낸 사찰을 비롯해 근처에 불교의 항일운동 발상지가 포진했다.

지명인 영실은 부처가 고대 인도에서 설법했던 영산회랑 또는 영취산에서 유래했으며 오백나한 역시 깨달음을 얻은 불제자들을 칭한다. 불래오름은 ‘부처가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래악(佛來岳)’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풍바위의 주상절리 기둥은 부처의 제자인 1250명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시대 일부 관리는 기암괴석을 ‘천불봉’(千佛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1), 『제주4·3사건자료집2 신문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그림 4> 한라산 영실과 불래오름의 존자암(왼쪽), 존자암 대웅전. 연구자 촬영(2020년 4월25일).

실제 영실에는 조선시대 국성재를 지낼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존자암’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리와 선비들이 한라산을 탐방할 때는 대부분 존자암을 거쳐가면서 영실의 장관을 감상했다. 홍유손이 1507년 지은 ‘존자암개구유인문’에는 ‘존자암은 비보소로 이름이 세상에 난지 오래다. 세 읍의 수령 중 한 사람을 뽑아 암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라 하였는데 지금은 제사가 폐지된 지 8, 9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상현이 어사로서 제주에서 수행한 임무와 견문을 적은 남사록(1602년)에서도 ‘존자암은 집이 9칸인데 지붕과 벽은 모두 기와나 흙 대신에 판자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²⁵⁾

과거 자료를 종합하면 영실계곡에 처음 있던 존자암은 불래오름 자락으로 옮겼고, 또다시 대정읍 지경의 저지대로 옮겨졌다가 1703년 이형상 제주목사 시절 강력한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발 1280m의 불래오름 존자암은 1993년과 1994년 이뤄진 제주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다시 조명을 받았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나온 기와, 도자기, 건물터 등을 분석한 결과 존자암은 14~17세기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²⁶⁾

승유억불 정책으로 한라산에서 200년 동안 단절됐던 불교문화는 1908년 안봉려관이 제주시 산천단에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다시 이어졌다.²⁷⁾ 영실계곡에서 4km가량 떨어진 서귀포시 법정암 능선에는 1911년 법정사가 생겨났다. 법정사는 이른바 ‘무오법정사항일 운동’의 발상지이다. 1918년 10월 법정사 김연일, 방동화 등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와 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순사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일제에 항거한 무장 항일 운동이다. 법정사는 당시 일본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²⁸⁾

이후 1948년 발발한 제주4·3사건으로 산중 사찰, 암자는 모두 철거되거나 불에 타는 수난을 겪었으며 관음사는 당시 토별대와 무장대의 교전장이기도 했다.²⁹⁾ 영실계곡에 암자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원정상 씨(77·서귀포시 중문동) 중언에 따

25) 송문기(2012),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제주도연구』 35, 119-157.

26) 제주대박물관(1996), 『존자암지』, 제주도.

27) 한금순(2010),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 247-287.

28) 김광식(2018), 「법정사 항일운동의 근대 불교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역사와 교육』, 27, 229-266.

29) 한금실(2008), 「제주4·3사건이 제주불교계에 미친 영향」, 『차세대인문사회연구』 4, 97-113

르면 1961년 육지에서 온 스님과 함께 계곡에 움막을 지어 생식을 하면서 부처님을 모셨고 신도가 많이 몰렸고 근처에 암자 3개가 더 생겼다고 했다. 영실계곡에 들어섰던 이들 암자는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1973~1978년) 정책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다가 1977년 철거됐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이나 경계에 들어선 사찰은 제주시 관음사를 비롯해 아흔아홉 골에 있는 천왕사와 석굴암, 영실탑방로 입구에 오백나한사 등이 있다. 불래오름 존자암 터에는 복원한 존자암이 2002년 들어섰다. 걸어서 이들 사찰을 둘러보는 ‘제주불교 성지순례길’도 만들어졌다. 순례길이 조성됐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포장도로가 상당 구간 포함되면서 전체 구간을 걷기보다는 석굴암~천왕사(2km), 영실탑방로주차장~존자암(1km) 등의 짧은 구간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3) 방목

한라산 어리목탐방로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해발 1630m 만세동산(또는 망동산)주변 달리 철조망이 둘러쳐진 1만m²의 면적에는 골풀, 김의털 등의 풀이 덮였고 일부는 흙이 드러났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말 방목이 제주조릿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불과 2~3년 만에 말들이 제주조릿대를 모두 먹어치웠고 심지어 뿌리까지 없앴다. 이 시험연구는 제주조릿대와 방목의 관계를 규명한 성과와 함께 과거 고지대에서 이뤄졌던 목축문화인 ‘한라산 방목’을 재현했다는 상징성도 있다. 해발 1400~1800m 고지대에서 소와 말을 방목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제주지역 특유의 목축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5>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만세동산의 제주조릿대 연구현장(연구자 촬영, 2020년 6월21일)과 말 방목 모습(제주도 제공).

한라산 고지대에서의 방목의 장점은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18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덕분에 진드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목자를 뜻하는 제주방언인 ‘태우리’들은 여름철마다 소와 말에 달라붙어 괴롭히는 진드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목장에서 방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강만익(2013)은 “제주의 목축민들은 한라산 해발 1400m이상 초지대를 마을 위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상산(上山)’이라 불렸고 목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제가 없이 자율적

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아고산지대에서 행한 특유의 목축문화인 ‘상산 방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라산 방목이 가능하려면 김의털, 청사초, 제주조릿대 등 벼과 식물 먹이 외에도 물이 필수였다. 해발 1400~1700m에 위치한 사제비샘, 노루샘, 백록샘, 방아샘 등은 소와 말에게 물을 공급해줬다. 볼래오름,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등의 습지와 고산 평원인 선작지왓 일대를 비롯해 윗세오름, 챗망오름, 이스렁오름, 큰드레 등의 오름(화산체) 주변 초지가 주요 방목지였다.

일부 소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 내부까지 들어가서 풀을 뜯었다. 물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도 있어서 소들이 본능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밭에서 일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산으로 올려 보냈다. 말들은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해서 늦가을까지 방목이 이뤄졌다. ‘궤’로 불리는 바위그늘 또는 길이가 짧은 바위굴은 테우리들이 잠을 자거나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이자 임시 숙소였다. 장구목 윗상궤, 선작지왓 탑궤, 백록담 동릉의 등터진궤, 돈내코탐방로 평궤 등이 대표적이다.³⁰⁾

소와 말을 고지대로 올려 보낸 지역은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 애월읍 광령리 등과 서귀포시지역에는 하원동, 회수동, 호근동, 상효동 등으로 한라산 남쪽과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다. 타원형인 제주 섬의 지리적 특성상 동쪽과 서쪽에서는 초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고산지역까지 방목할 필요가 없었다. 한라산으로 올려 보낸 소와 말들은 서로 섞여서 이동하다가 잃어버린 사례도 있었지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방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뒤 ‘야우’(野牛)로 변하기도 했으며 최근 발견되는 배설물 흔적 등으로 볼 때 야우의 후손인 야생 소들이 한라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천마리에 이르렀던 고지대 방목은 1970년 한라산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금방 중단되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방목을 하는 오랜 관행을 묵인해주다가 1980년대 들어 방목이 한라산을 훼손하고 등산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단속을 강화했다. 국립공원 직원들이 고지대에 방목한 소와 말을 임시 목장에 가두어서 마리당 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 고산 방목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라산 방목의 마지막 세대인 원수윤 씨(62·서귀포시 하원동) 증언에 따르면 “199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다른 마을주민의 요청으로 암소와 교배를 위해 수소를 올려 보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국립공원으로 소를 보내지 않고 마을공동목장에서 사육을 했다”고 했다.

4) 산악인 기념물

제주 산악계 선구자인 김종철(1927~1995)은 오름(작은 화산체)을 집대성한 책 ‘오름나그네’를 펴낸 인물로 오름을 중요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종철은 오름과 더불어 한라산에서 살다시피 했다. 한라산을 1000회 이상 오르내렸고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산악구조대인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 초대 대장을 맡아

30) 강만익(2017), 『한라산의 목축생활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서 수많은 인명구조는 물론이고 산악문화의 기반을 다졌다.

화장된 김종철의 유골(재)은 선작지왓의 용암돌탑인 높이 2.6m의 ‘탑궤’ 주변에 뿐려졌다. 백록담 화구벽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다. 한라산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품에 스며든 것이다. 별명이 ‘지리산 산신령’으로 등산객을 안내하고 보호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난 뒤 “지리산에 영원히 들어가니 찾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1976년 6월 홀연히 산 속으로 사라진 허만수(1916~?)와 닮은 꼴이다.

이런 모습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 나타나는 산과의 ‘일체화’로 해석할 수 있다. 최원석(2015)은 “서양에서는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동양지역인 중국 북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스런 공간이었고, 화산지대인 일본에서는 삶터와 단절된 두려운 신(神)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설화적 요소가 강하고, ‘산=어머니’ 같은 등식으로 의인화를 하면서 친근하게 여긴다”고 분석했다.

‘산에서 태어나, 산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은 전문 산악인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산악인들은 한라산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정상까지 등반하는 극지법을 비롯해 독도법, 동계훈련, 응급처치 등의 훈련을 하면서 상당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식처’, ‘영혼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사고로 영면한 산악인을 기리는 추모기념물이 한라산 곳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인 최초로 1977년 세계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1948~1979)을 기리는 케른(cairn·이정표나 기념을 위해 쌓은 돌무더기나 석총)은 장구목능선(해발 1750m)에 세워졌다. 제주출신인 고상돈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나서 1979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등정에 나섰다가 하산도중 추락사했다. 제주지역 산악인들은 이듬해 백록담 보이는 곳에 케른을 만들었다.³¹⁾

서귀포시 출신 오희준(1970~2007)은 1999년 초오유를 시작으로 2006년 마나슬루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0좌를 단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하는데 성공한 인물이다.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눈사태로 숨지자 당시 제주 산악계 충격이 컸다. 동료 선후배 산악인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백록샘(해발 1680m) 부근에 높이 1.8m가량의 케른을 세웠다.³²⁾



<그림 6> 탑궤와 오희준 케른. 연구자 촬영(2020년 5월17일).

1936년 1월3일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 9명이 한라산 겨울 등반과 훈련을 한 후 하산 도중 마에가와 도시하루(前川智春)가 조난됐다가 그해 5월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듬해 8

31) 고상돈기념사업회(2008),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 도서출판 각.

32) 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2015), 『오희준 산사나이 하늘 오르다』, 열린출판기획.

월 왕관릉 부근에 케른과 추모비를 세웠다. 한라산 관련 기록에서 최초의 산악인 조난사 고사이다. 1961년 1월 조난사한 서울대 법대산악부 이경재(당시 20세)를 기리는 기념비는 관음사 입구에 있으며 장구목(해발 1800m)에는 제주대 산악부, 맥킨리 원정대원 등 추모동판 3개가 암벽에 새겨져 있다.

<표 3> 산악인 추모 기념물

설립 시기	산악인 (괄호안은 당시 나이)	형태	장소	비고
1937 년	마에가와 도시하루(20·일본인)	케른과 추모비	용진계곡 현수교 동남쪽 150m	적설등반 조난사
1961 년	이경재(20)	기념비	관음사 입구	서울대 법대산악부 훈련도중 탈진사
1980 년	고상돈(31)	케른	장구목 능선	1979년 맥킨리봉 추락사
		유해와 기념비	1100고지 휴게소	경기도에서 유해를 이장
1981 년	전영철(21), 정정규(20)	무덤	왕관릉 동남쪽 150m	서울대 치과대 산악부 낙뢰사
1983 년	고동익(22)	추모동판	장구목정상	제주대 산악부 훈련도중 동사
1984 년	김영준(20)	케른	선작지왓	1980년 2월 제주산악회 훈련도중 추락사
1992 년	양영수(28), 진성종(25), 홍성탁(24)	추모동판	장구목정상	제주대 맥킨리 원정대 조난사
1993 년	김진현(25)	기념비	어승생수원지 인근	1992년 히말라야 랑탕리옹 조난사
1995 년	김종철(68)	탑케	선작지왓	초대 제주적십자산악안전 대장, 병사
2001 년	박미정(22), 박윤복(26), 장우석(28)	케른과 추모동판	관음사 야영장	대학산악부 합동훈련 눈사태 사망
2007 년	오희준(37)	케른	백록샘 인근	에베레스트 눈사태 사망

출처: 제주도산악안전대, 제주도산악연맹, 한라산 조난사고기록과 현장 확인을 거쳐 연구자가 작성.

5) 풍수지리

한라산 백록담분화구 서북벽 밑 해발 1800m에는 가로 7m, 세로 9m, 높이 0.7~0.8m 산담이 처진 무덤이 있다. 고인은 ‘원주 원(元) 씨’로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인 1960년에 무덤이 조성됐다. 고인의 아들인 원모 씨(79·서귀포시 하원동)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난 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서 지관에게 물어보

니 ‘마을주변 밭에 있는 무덤의 위치가 나빠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당을 찾아서 한라산에 이장을 했다”며 “이장하고 나서 수년 뒤 아들을 얻기도 했고, 우환도 있었지만 이장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풍수(風水)에 따라 지관이 찾은 뒷자리는 제주의 6대 음택(陰宅) 명당의 하나로 제4혈인 ‘해두명’(亥頭明)이다. 돌트명 또는 둑두명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 돼지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원 씨 뒷자리는 해두명 혈지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했다.

풍수는 뒷자리를 찾는 음택풍수, 집터나 건물터 등을 물색하거나 평가하는 양택(陽宅) 풍수 등으로 나뉘는데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등으로 쓰이는 말들이 풍수에서 유래했다.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의 줄임말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생 풍수와 섞였다는 주장이 있다. 풍수는 명당과 망인의 후손이 서로 감응해 복을 얻는다는 ‘발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좁은 의미로만 본 것이다.³³⁾

풍수를 미신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건물이나 집을 짓거나 이사할 때, 부동산을 살 때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도 생활 곳곳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생태학자나 지리학자 등은 풍수를 ‘생리적으로 쾌적한 지형·기후조건을 갖춘 명당을 찾아가는 인간의 적응 전략’이라는 과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³⁴⁾

조선시대 풍수가들에게 제주지역은 남달랐다. 산의 흐름인 지맥(地脈), 물의 흐름인 수맥(水脈) 등으로 명당을 찾아내는 육지의 풍수와는 달리 제주지역은 지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산 폭발로 섬이 형성되었기에 지맥보다는 용암의 흐름으로 땅의 기운을 봐야했다. 한라산은 지맥을 일으키는 종산(宗山)이 된다. 섬의 형태는 남북보다 동서로 긴 장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곳곳에 솟아오른 오름(백록담을 제외한 화산체)과의 연결성으로 지맥을 해석한다.³⁵⁾

제주에는 음택의 전설적인 명당인 ‘6대 명혈’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4개가 한라산 해발 1200m 이상에 있는 고산 명혈이다. 제1혈은 ‘사라혈’로 산정화구호를 품고 있는 사라오름에 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 형상으로 ‘하늘이 감추고 땅이 감춘다’는 명혈지이다. 지세와 풍수가 빼어나 풍수의 이상향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판악탐방로 입구에서 5.8km 떨어진 지점에서 오름 정상까지 갈 수 있으며 산정화구호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초입에 무덤 2개가 보인다. 제주조릿대로 덮인 것으로 보면 별초를 하지는 않는 듯 했다. 오름 등성이를 포함해 명혈 영역에 3기의 무덤이 있다.

제2혈은 ‘의항혈’(蟻項穴)로 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정상방면으로 5.6km 떨어진 개미목 또는 개여목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개미의 머리 형상으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는 대장군의 형국인데 혈지 영역에 7기의 무덤이 있다. 제3혈은 중국 송나라 유학자인 주자의 부친이 묻혀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영실혈’(靈室穴)로 아침에 봉황새가 울

33) 신영대(2006),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한라산총서 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34) 양동주·홍상욱(2018), 「풍수지리사상의 생활풍수 적용인식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총론』 21, 269-306

35) 신영대(2009), 『제주의 오름과 풍수』, 백산출판사.

어대는 형국인 봉명조일형(鳳鳴朝日形)의 지세로 읽히며 7기의 무덤이 있다. 제4혈인 해두명 영역에는 8기의 무덤이 있다.³⁶⁾

사라혈, 의향혈 등 2개 혈지는 한라산 탐방로에 있어서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영실혈, 해두명 등 2개 혈지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 있다. 이들 명당에 여러 무덤이 있는 것은 지관 각각의 해석에 따라 명당의 위치가 달랐던 것이다. 이들 고산지역 명당에 위치한 무덤은 대부분 장례 당시 봉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저지대에서 시일이 지난 뒤 뼈를 수습해 이장한 것이다. 시신을 운구해 한라산 고지대까지 이동하려면 비용, 숲과 경사가 있는 동선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림 7> 사라혈과 영실혈. 연구자 촬영(2020년 7월3일).

명당으로 알려진 이들 지역 외에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물장오리오름, 방애오름, 큰두레왓 등의 오름에도 무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음덕으로 발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2005년 명당자리를 찾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명당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가 힘들어 음택 명당의 무덤을 저지대로 이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6) 수로(水路)와 저수지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의 ‘생명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 연평균 강수량은 성산 1918mm, 서귀포 1875mm, 제주 1467mm, 고산 1183mm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역인데 한라산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린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라산 연평균 강수량은 성판악 4574mm, 어리목 3424mm, 진달래밭 5613mm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빗물은 한라산 계곡으로 모여 지하로 사라졌다가 일부는 중간에 솟아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땅속 깊숙이 내려간다. 물이 잘 빠지는 V자형 용암계곡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처럼 지하를 흐르다 투수층과 불투수층 암반 틈새로 새어나오는 것이 샘물이다. 한라산탐방로에 있는 사제비샘, 노루샘, 용진각샘 등은 빗물이 깊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고지대에서 빠져나온 샘물이다. 해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용천수’로 불리는데 문제는 조그만 가뭄에도 쉽사리 말라버린다는 것이다. 지하관정 공사를 해서 물을 뽑아내기 이전에는 용천수, 봉천수(인공적인 연못 물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인 물) 등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수개발 이전까지 물 문제는 제주지역 주민을 괴롭힌 최대 현안으로 한라산 고지대

36) 송성대(2000), 「제주육대음택명혈지의 경관해석과 메타언어에 대한 시론」, 『탐라문화』 21, 135-176

물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했다. 애월읍 광령리 지역에 논을 조성하기 위해 1930년대 어승생 주변 계곡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기도 했으며 서귀포시 하원동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영실계곡 물을 논 경작에 쓰기 위해 수로를 조성했다. 하원 수로는 지금도 흔적이 남았으며 일부는 트레킹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1964년 제주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부가 나서 어리목계곡과 아흔아홉골 물을 저지대로 끌어들이는 ‘어승생저수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저수지 개발 예정지가 어승생악(오름)과 닿아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개발사업은 예산문제로 흐지부지되다가 1966년 당시 관광개발에 관심이 깊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리목계곡 물을 저수지에 모으는 형태를 직접 그런 ‘제주도 수자원개발 기본 구상도’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현실화됐다.

이 메모지로 인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승생 저수지 개발 구상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나온 아이디어다. 일제는 1937년 수립한 ‘제주 개발계획’ 핵심 사항인 공업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어승생 표류수 취수 및 공급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58년에는 당시 제주지역 김두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승생 수원개발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1967년 용수개발 실시설계를 통해 10만6800t 용량 어승생저수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해 4월 기공식을 했으며 공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검거한 폭력배를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503명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으나 123일 동안의 체류기간동안 실제 작업 일수는 60일에 불과했고 탈주,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³⁷⁾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해발 500m일대 어승생저수지 개발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2년 단축했으나 2차례 저수지 바닥 함몰사고가 나면서 1971년 12월에야 준공할 수 있었다. 준공 이후에도 수도관 연결 누수로 물이 새기도 하고 폭우로 수도관이 유실되기도 했다. 여러 불편이 발생했지만 어승생저수지는 동쪽인 구좌읍 송당리에서 서쪽인 안덕면 동광리까지 해발 200~600m의 중(中)산간 일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물의 혁명’을 가져왔다. 장구벌레가 가득한 봉천수로 인한 전염병과 풍토병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림 8> 어리목계곡 수원과 어승생 저수지. 연구자 촬영(2020년 8월 9일).

37) 제주도 상하수도본부(2018), 『제주상수도개발 60년사』, 제주도.

제주도는 어승생저수지가 운용된 이후에도 용출량 변동, 수로 훼손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진 해발 680m 일대에 50만t 용량의 어승생 제2저수지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3년 3월 완공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육상에 노출된 수로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리목계곡에서 저수지로 이어진 관로를 지하에 매설, 안정적인 물 유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2저수지 가동에 따라 하루 1만8000t의 용수를 29개 마을 1만78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다. 저수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 때마다 발생하는 격일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 1만8150t 생산이 가능한 30개 지하수공을 개발해 중산간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7) 임산물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의 울창한 숲에서 노지 원목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고유의 향과 맛이 일품인 특산 임산물이다. 제주방언으로 ‘초기’로 불리는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나 육류에 곁들이면 좋다.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인기가 높은데 2004년 미국식품의약국(FDA)는 말린 표고를 10대 항암식품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표고버섯 재배는 원목과 톱밥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국내 표고버섯 인공 재배는 한라산에서 가장 먼저 이뤄졌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산 표고버섯을 채취했으며 인공재배는 1905년 일본인 3명이 만든 회사인 ‘동영사’(東瀛社)가 한라산에서 재배한 것이 국내 시초로 알려졌다.³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표고버섯 인공 재배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확한 표고버섯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부는 중국으로 수출도 했다. 한라산에 넓게 분포한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이 표고버섯 원목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일본인들은 이들 원목을 마구 남벌하면서 산림자원이 사라지기도 했다. 해방이후에는 제주지역 주민 등이 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육성했다. 표고버섯 생산량은 1938년 3500kg에서 1973년 10만680kg, 1977년 6만1589kg 등으로 증가했으며 동남아, 일본 등지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였다.³⁹⁾

해방이후 표고버섯 재배지는 76개소로 대부분 한라산 해발 500~1000m에 위치했는데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에서 표고버섯 재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영실탐방로사무실 부근 1개소를 제외하고는 외곽지역으로 밀려났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원목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32개소 등 모두 52개 농가로 지난해 생산량은 생 표고버섯 5만450kg, 마른 표고버섯 11만3080kg이다.

38) 제주도(1997), 『미래의 보고 제주도』, 제주도.

39) 제주도 환경녹지과(2006), 『제주산림 60년사』, 제주도.



<그림 9> 한라산 영실 주변 표고버섯 재배모습. 연구자 촬영(2020년 9월 27일).

주민들이 한라산에서 얻었던 직접적인 수익은 임산물이 대부분이지만 삼림지를 불태운 후 농사를 짓는 화전농이 등장한 적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제주시 능화오름(해발 975m)에서 족은드레왓(해발 1339m)를 연결하는 해발 600~1200m 일대에 화전마을이 형성됐으나 1948년 발발한 제주4·3사건 당시 산간마을을 없애는 ‘소개령’에 사라졌다.⁴⁰⁾ 제주4·3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부 지역에서 마을 복원사업이 있었지만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추위가 심한 기후특성, 화산회토의 토양, 생활용수 공급 부족 등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비해 지리산은 비옥한 토양에다 골짜기가 깊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을 형성과 유지가 가능했다. 이상향으로 일컬어지는 ‘청학동’이 산에 자리 잡은 배경이기도 하다.

한라산에서 농사가 힘든 대신 풍성하고 독특한 산림이 최대 자원이었다. 일제강점기간에 목장조성과 화전농업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구상나무, 소나무, 주목 등을 대량으로 별목했으며 텔진달래, 눈향나무, 당단풍나무 등을 정원수나 분재용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해방이후에는 연료와 난방용 등으로 쓰인 숯을 만들면서 원시림 곳곳에서 생채기가 났다. 당시 숯을 생산했던 ‘돌가마’를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탐방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 산간지대에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숯 굽기는 연탄과 석유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한라산에서 새로운 임산물 자원 개발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민간에서 산양삼 재배가 추진되다가 1992년 제주도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2000년까지 산양삼 산지 파종, 농가보급 시험 등을 거친 결과 해발 500m이하에서는 여름 고온으로 고사되는 반면 해발 700m이상에는 3년 이상 출아율이 50% 이상을 유지해 재배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산양삼 사포닌 성분은 인삼보다 1.3배가량 높게 검출되는 등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연구 덕분에 현재 제주시 8농가, 서귀포시 6농가 등 14농가가 54만m²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한라산은 국내 대표적인 약초생산지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관련 통계마저 없는 실정이다. 약초업계에서는 한라산 자생식물 종수의 절반에서 약재성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풍과 습도 등이 제주에 자생하는 식물의 약재성분을 높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라산 고지대에서 자라는 약초는 더더욱 약재성분이 풍

40) 강만익(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I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부해 선호도가 높다. 도라지, 더덕은 물론이고 천마, 제주황기 등은 1960~1970년대 많이 채취됐다. 이들 약초를 캐서 생계를 꾸리거나 상당한 재산을 모은 주민도 생겨났다.

IV. 맷음말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가 획득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1966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지정에 이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학술조사(자연자원조사 포함),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형·지질, 동·식물 등 자연과학분야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인문분야 연구와 조사는 미진했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이미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인문경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이고 삶의 터전이다. 본고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제주지역 자산으로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서 인문경관에 대해 탐구와 연구를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인문경관을 시설·도로형, 1차 산업형, 종교·제사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분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다양한 인문경관이 산재해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연속성,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확장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 교훈적인 역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주4·3사건, 불교, 방목, 산악인기념물, 풍수지리, 수로 및 저수지, 임산물 등 7개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제주4·3사건은 한라산과 제주도민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될 정도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지대 방목은 제주지역에서 가능한 특이성을 보였다. 한라산 계곡에 만들어진 수로 및 수원지는 기나긴 시간 동안 고질적으로 시달린 물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영실지역은 불교문화의 뿌리임을 확인했다. 한라산은 후손들의 발복을 바라는 읍택 명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케른과 탑궤는 한라산에 깃든 산악인 영혼의 표상으로 인식됐다.

이들 인문경관 외에 무속신앙, 제례, 수렵, 양봉 등도 한라산 일대에서 공개적으로, 때론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경관은 이미 세계적인 유산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인문경관이 더해지면 유산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인문경관에 대한 의미부여와 활용방안, 추가 인문경관 자원 발굴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라산 인문경관에 대한 제주도민과 한국인의 인식 비교 등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만익(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I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137-195.
- 강만익(2017), 『한라산의 목축생활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 강문규 장윤식(2013), 「한라산에 남겨진 역사와 문화의 자취」, 『한라산총서축약집 한라산이야기』,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강정효(2003), 『한라산』, 돌베개.
- 고상돈기념사업회(2008),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 도서출판 각.
- 고윤정(2013), 「조선시대 한라산유산기와 등람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 고윤정(2016), 「한라산 조사연구 현황 및 인문분야 향후과제, 한라산 인문학의 가치를 논하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국립제주박물관(2013), 『한라산』, 디자인나눔.
- 김광식(2018), 「법정사 항일운동의 근대 불교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역사와 교육』 27, 229-266.
- 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2015), 『오희준 산사나이 하늘 오르다』, 열린출판기획.
- 송문기(2012),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제주도연구』 35, 119-157.
- 송성대(2000), 「제주육대음택명혈지의 경관해석과 메타언어에 대한 시론」, 『탐라문화』 21, 135-176.
- 신영대(2006),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한라산총서 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신영대(2009), 『제주의 오름과 풍수』, 백산출판사.
- 안웅산 홍세선(2017), 「제주도 한라산백록담 일대의 화산활동사」, 『암석학회지』, 26-3.
- 양동주·홍상욱(2018), 「풍수지리사상의 생활풍수 적용인식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총론』 21, 269-306.
- 양송남(2010), 『양송남의 한라산이야기』, 태명인쇄사.
-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광중(2006),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 고찰」, 『한라산총서 III』,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정광중(2006),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 전종한(2006),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연구』 10.
- 진종현(2013), 「문화경관이자 공공공간으로서의 산」,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자료집』, 132-141.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1), 『제주4·3사건자료집2 신문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제주대박물관(1996), 『존자암지』, 제주도.
- 제주도(1997), 『미래의 보고 제주도』, 제주도.
- 제주도경찰국(1990), 『제주경찰사』, 일신인쇄사.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2018), 『제주상수도개발 60년사』, 제주도.
-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2018), 『한라산가치보전천년대계수립보고서』, 제주 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
-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3), 『제주4·3유적1-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 제주도 환경녹지과(2006), 『제주산림 60년사』, 제주도.
-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도.
- 최원석(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한길사.
- 최원석(2015), 『산천독법』, 한길사.

- 한금순(2018),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29.
- 한금순(2010),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 247-287.
- 한금실(2008), 「제주4·3사건이 제주불교계에 미친 영향」, 『차세대인문사회연구』 4, 97-113.
- 현용준(1970), 「한라산에 얹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지』 44.
- 현임종(2013), 『(속)보고 듣고 느낀대로』, 대동출판사.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http://stdict.korean.go.kr/>)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 한라산국립공원(www.jeju.go.kr/hallasan/)